



'5월 광주'의 봄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27를 맞았다. 한국 민주주의의 성지인 국립 5·18 묘지에도 푸르른 신록, 붉은 철쭉과 함께 5월은 어김없이 찾아왔다. 5월 한달동안 5·18 묘지는 전국에서 온 수십만 참배객들의 민주주의 교육장 역할을 하게된다.

/*위리장기자 jrwi@kwangju.co.kr

실 땅 잃은 지역 소상공인

급증하는 대형 유통업체



광주지역 상권이 대기업 계열사 소속의 대형 유통업체에 점령 당했다. 8일 광주시에 한 대형마트가 쇼핑 나온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어 위축된 소상공인의 현수소를 말해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만 16곳... 인구비 '최다'

6~7곳 추가입점 추진... 지역업체 몰락 연간 2,000억 넘는 돈 수도권 유출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재벌그룹 계열의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국 유통망을 갖춘 대형 유통업체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소비자를 입장에선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재래시장과 동네 슈퍼마켓 등 지역 유통업체는 고사 직전이다.

더구나 이달부터는 롯데슈퍼가 빅마트 매장을 리모델링한 후 매장면적 300~800평 규모의 SSM(슈퍼슈퍼마켓)으로 재 개장할 예정이다. 롯데슈퍼 2개점이 들어설 예정인 목포에서는 슈퍼마켓연합회를 중심으로 입점 반대운동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8일 광주시와 유통업체에 따르면 광주지역은 대형 유통업체의 인구 밀도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며,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의 몰락이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된 것

로 나타났다.

현재 매장면적 3천㎡이상의 대형 유통업체는 백화점 5곳과 대형마트 11곳 등 16개소에 달한다. 대형 유통업체의 점포당 인구는 8만8천여명으로 타 광역시인 부산 11만4천명, 대전 11만2천명, 울산 9만2천명에 비해 훨씬 낮아 유통업체의 난립상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에 이마트 봉선점이 오는 7월 개점 예정이고 삼성 홈플러스가 하남2지구에, 필하마트가 계림동에 입점하기 위해 이미 인·허가 절차를 마친 상태다. 또 홈에버가 옛 나산클레프 자리에, 롯데마트가 수완지구에 입점을 추진하는 등 6~7개가 추가로 문을 열면 지역 상권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도·소매업 판매액 지수'를 보면 광주지역 도·소매업의 영업 이익률이 1998년 9.7%에서 2004년 7.8%로 떨어지는 등 대형 유통업체가 늘어

나면서 지역 상인들이 장사로 손에 쥐는 돈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고용창출과 지방세 수입 증대 등 일부 순기능도 있지만 자본의 역외유출과 지역 상품의 납품기회 상실 등 지역 경제 측면에서는 역기능이 훨씬 많다.

광주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한 해 매출액이 1조4천억원이고 유통업체의 영업이익이 매출액 대비 15%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본사가 있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빅마트와 광주법인 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유통업체들의 농·수·축산물 등 지역내 상품 구매율이 30%를 넘지 않아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이 지역경제로 환원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울토마토를 생산하는 농산물 판매업인 S사 대표 김모(56)씨는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의 경우 자체 물류센터를 통해 전국 매장에 물건을 배송하는 체계라 품질이 좋더라도 지역 업체가 유통망을 뚫고 들어가기 힘들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한전 본사매각 거부

공공기관 이전 나주혁신도시 차질 우려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이 정부 정책과 반대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본사 부지 매각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3·10면〉 정부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모든 공공기관의 수도권 소재 본사 부지를 매각한 뒤 지방으로 이전하는 '선 매각, 후 이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의 공공기관이 본사 부지 매각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한전이 처음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전의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본사 매각 거부 움직임이 확산돼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또 한전이 서울에 대규모 사무실을 뒀다 따라 나주 혁신도시가 자칫 빈껍데기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전은 8일 "정부는 선 매각, 후 이전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공공기관 지분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본사 매각은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다"면서 "자체 이전 비용 조달이 가

능한 한전의 경우 꼭 본사 부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나주 혁신도시로의 이전은 오는 2012년까지이며, 본사 매각은 이전 후에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서 "본사 매각을 반드시 이전 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의 '선 매각, 후 이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다.

물론 한전은 나주로의 이전 자체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는 원칙론을 표명했다. 한전 이전추진실 관계자는 "아직 본사 매각계획과 관련해 최종 입장이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한전의 기본입장은 정부의 방침에 적극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와 지역 전문가들은 이전 비용 조달이 충분하므로 본사 부지를 매각할 필요없다는 한전의 주장이 사실상 서울의 본사 기능을 이전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사 기능을 이전하더라도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할 경우 한전의 이전효과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계하고 있다.

/*최희희기자 chae@kwangju.co.kr

취업 포기 청년 415만명

1년새 10만명 증가

청년층(15~24세)으로 취업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취업포기자 415만명에 달하며 1년 사이 10만명이나 증가, 고용률 정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 연구원(KDI) 연구원은 8일 '최근의 실업률 하락 및 고용률 정책 요인 분석' 보고서에서 "최근 고용률이 정체되고 있는 것은 청년층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순수 비(非)경제활동인구가 늘고 이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률 기여도가 감소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1·4분기 실업률은 3.6%로 지난해 동기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고용률은 지난해 동기(58.5%)와 비슷한 58.6%를 기록했다.

취업률 의사가 없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아 취업 포기자에 해당하는 순수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보다 10만700명 증가한 415만4천명이었다.

/*최희희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 노래방 연쇄 강도 검거

▶ 7면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조이트래블

www.joy-travel.net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 5가 57번지 2F
대표전화 (062) 234-3222

기억에 오래도록 간직될 가슴 설레이는 여행...
매년 1만명 이상의 고객들께서 **조이트래블** 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십니다.
해외여행 보증보험 5억원 가입업체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PANSTAR CRUISE FERRY
오사카/나라/교토 4박 5일
469,000

출발일: 6월 7일
숙박: 특급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 포함 사항: 배위 행복 승선권, 입항요금의 일일료 및 식사, 국내항공료, 여행자보험, 여행기타비용, 기내식, 기내서비스
▶ 불포함사항: 여권 및 개인장비, 국내항공료, 기내식
▶ 상품 특 전: 노퍽, 노퍽선, 승객세 및 각종 부대비용 포함

광주 MBC 문화방송
광주→하이난(하남) 직항

구분	상품명	출발일	상품가
관광	하이난 관광 4일 NO TIP !!	7/25, 8/1, 8/8	690,000
	하이난 관광 5일 NO TIP !!	7/21, 7/28, 8/4, 8/11	790,000
골프	하이난 골프 4일	7/25, 8/1, 8/8	790,000
	하이난 골프 5일	7/21, 7/28, 8/4, 8/11	890,000
호라이즌 플리트 (자유여행)	플리트(씨부) 4일 NO TIP & NO SHOPPING	7/25, 8/1, 8/8	1,050,000
	플리트(씨부) 5일 NO TIP & NO SHOPPING	7/21, 7/28, 8/4, 8/11	1,200,000

일본

추천상품 1
오감만족! 국내 최저가 일본 큐슈 순천 4일
279,000
▶ 출발일: 6월 3, 5, 8일
▶ 숙박: 아비노미, 통나무 콘도
▶ 전 일정 노퍽/노퍽선/광주출·도착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승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2
통나무 콘도와 일본 전통 온천호텔과의 만남 4일
299,000
▶ 출발일: 6월 1, 7일
▶ 숙박: 빌라형 통나무 콘도+일본전통온천호텔
▶ 노퍽선/광주출·도착기준 / 기내식 및 별도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승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3
일본 전통 온천호텔을 체험하는 절호의 찬스!! 4일
349,000
▶ 출발일: 6월 3일
▶ 숙박: 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 전 일정 노퍽/노퍽선/광주출·도착기준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승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추천상품 4
팬스타와 함께하는 오사카/나라/교토 5일
469,000
▶ 출발일: 6월 7일
▶ 숙박: 특급온천호텔 또는 특급호텔급

추천상품 5
항공+초특급호텔 오사카/나라/교토 KE 4일
699,000
▶ 출발일: 6월 14일
▶ 숙박: 전일정 특급호텔
▶ 상품 특 전: 유료 관광지 다수 입장/노퍽, 노퍽선 전 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 부산출발(국내 수송 별도, 15인 이상 전용 차량 운행)

광주에서 출발하는 **장사(장가계) 전세기 직항**

"人生不到張家界 百歲豈能稱老翁?"

5월 17일 ~ 8월 30일
목요일(3박4일) · 일요일(4박5일)

	목요일(3박4일)	일요일(4박5일)
실속	590,000 ~ 570,000	650,000 ~ 630,000
풍격	650,000 ~ 620,000	680,000 ~ 660,000
골프	790,000 ~ 770,000 (38h)	840,000 ~ 820,000 (54h)
관광 + 골프 (36홀)	790,000 ~ 770,000	

▶ 포함 사항: 항공료,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가이드, 현지 관광지 입장료, 광주출·공황세, 1억원 여행자보험, 전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현지 공항세
▶ 불포함사항: 여권, 단체 비자 발급비(W18,000), 가이드8기차 탑

중국1-전세기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상해/백두산/도문 CZ 4일
729,000 ~ 679,000 ▶ 5월 18, 25일

패키지2 (광주출발)
상해/백두산/도문/단둥 CZ 5일
779,000 ~ 729,000 ▶ 5월 21, 28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패키지3 (광주출발)
상해/구채구/황룡/낙산 CA 5일
1,049,000 ▶ 6월 7일
-비자발급비(8,000) 별도

중국2-대한항공상품

패키지1 (광주출발)
상해/소주/항주/추가각 KE 4일
399,000 ▶ 5월 13, 20일 / 6월 13, 20일 / 7월 4, 11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패키지2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859,000 ▶ 5월 19, 26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패키지3 (광주출발)
상해/항주/장가계(원가계) KE 5일
789,000 ▶ 6월 2, 9, 16, 23일 / 7월 7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패키지4 (광주출발)
상해/항주/황산 KE 4일
649,000 ▶ 6월 13, 20일 / 4, 11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패키지5 (광주출발)
상해/황산/항주/추가각 KE 5일
625,000 ▶ 6월 2, 9, 16, 23일 / 7월 7일
-비자발급비(8,000), 가이드 및 기사 팀 (1만5,000) 별도

유럽

광주 MBC 문화방송 1
[실속] 백조의 성과 오프라우 LH 12일
3,090,000 ▶ 6월 29일

광주 MBC 문화방송 2
[풍격] 오프라우와 베니스 운하 LH 10일
3,690,000 ▶ 6월 22일

광주 MBC 문화방송 3
[풍격] 동유럽 유구스미르, 적센스 LH 9일
2,790,000 ▶ 6월 21일

광주 MBC 문화방송 4
[풍격] 트로이와 티키 일주 KE 9일
2,490,000 ▶ 6월 19일

추천상품(광주출발)
서유럽+동유럽 5개국 JL 16일
3,390,000 ▶ 6월 26일
-전일정 노퍽/노퍽선
독일·스위스·이탈리아·오스트리아·체코

남태평양

패키지1
시디니 완전일주 OF 6일
990,000 ▶ 6월 5일
-개인장비, 가이드 및 기사 팀 별도

패키지2 (픽업특기)
호주/뉴질랜드 남섬 (1급호텔) OZ 10일
1,290,000 ▶ 5월 21일
-개인장비, 가이드 및 기사 팀 별도

패키지3 (추진특기)
호주/뉴질랜드 북섬 OZ 8일
1,390,000 ▶ 5월 22일
-개인장비, 가이드 및 기사 팀 별도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관광정책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 ◆ 5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계약 가입업체 ◆ 교통요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1억원), 국내항공료(5천원), 관광진흥법(1만원), 관광 및 부대비용, 유류할증료 포함 ◆ 상품 특 전: 유료 관광지 다수 입장/노퍽, 노퍽선 전 일정 차별화된 식사 및 숙박 ◆ 여행자보험 1억원 가입 / 승객세 및 기타 부대비용 포함 ◆ 특가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